

TONK와 DINK

심 영 기(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이곳 저곳에서 Silver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정년은 낮추고 있으니 아마 그 배후에는 Silver 산업 브로커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각 종 건강식품이 날개 돋힌듯이 팔리며 여러 질병들이 속속 정복되고 있으니 아마 평균 나이가 곧 100살이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클레어 부츠 루스 여사는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조지 와싱턴 대통령은 ‘미 건국의 아버지’, 링컨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등이다. 닉슨은 이 말에 가장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써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인생을 설명하는데 한 권의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단 한 줄로 인생은 표현된다고 한다. 후세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한 시대를 표현하는데는 두꺼운 분량만큼의 설명이 필요없는 것 같다. 단 한 줄, 더 줄여 단 한 단어로 그 시대가 표현되기도 한다.

1960년대에는 히피(Hippie)족이 유행했다. 기존 체계를 부인하고 자유 방임형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온 세계를 돌아 다녔다. 장발에 혼란스런 색깔의 옷을 입은 현대판 집시족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기성 세대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 일도 많았지만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도 한 몫을 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마음에 안들면 군대 징집도 거부해 버렸다. 통기타 하나 둘러메고 들로 강으로 몰려 다녔다. 문란한 생활로 자체 붕괴되어 버리기도 했고 집단의 힘을 빌어 욕구충족을 위해 시위도 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는 소위 여피(Yuppie)족이 유행했다.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높은 연봉에 명명대고 사는 사람들로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Young Urban Professionals에 Hippie처럼 ie를 붙여 고학력의 전문기술자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젊은 엘리트들을 지칭하여 쓴 말이었다. 고소득에 자랑할만한 사회적 위치가 긴 수염의 결과로 알려져 왔던 통상의 개념을 깨고 발랄한 아이디어로 젊음과 부를 동시에 누리고 살았으니 누군들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말끔한 옷에 언제나 넥타이를 맸다. 여름철엔 가죽 슬리퍼에 하와이풍의 반바지, 티셔츠를 입었다. 자유 분방했지만 Hippie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전통 보수주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열심히 일하면 이렇듯 날 보란 듯이 살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미국의 저명한 사립대학이 있는 학교 주위 상가에는 아예 이들만이 다니는 별도의 상점들이 있었다. 이들이 입는 옷 스타일은 시중 옷 가게에서보다 같은 옷이라도 이 상점에서는 보통 열 배 이상이나 더 비쌌다. 비싼 옷이라야 이들에겐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수난을 겪는 시대가 찾아 왔다. 더 이상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 빠른 시간 내에 부와 권력을 잡아보려는 현대인에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른바 DINK족의 출현으로 사실상 전통적인 가정, 전통 사회의 질서는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Double Income No Kids! 맞벌이 부부에 아이는 없다! 식사는 언제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고 주말이면 늘상 여행을 떠난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보편화되었다. 봉급은 적어도 휴가가

많은 회사라면 응시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느즈막한 나이에 혹 아이 생각이 나면 원하는 때에 필요하면 아이를 하나 정도 낳는다. 아니면 적당한 때에 입양을 한다(우리 나라의 경우는 거의 이런 일이 없지만).

이렇게 하여 미국은 30대에 백만장자가 부지기수로 생기고 그 유행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그런데 이들이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어느 때보다도 총기 사고로 죽어 가는 선량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어느 시대보다도 사이버 종교에 심취해 자살하는 부류들이 많아졌다. 초강대국 미국이 그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 이 때에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전 세계에 비참한 전쟁은 늘어가고 있고, 먹다먹다 지쳐 그대로 쓸어버리는 음식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한편엔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의 TV 화면이 이젠 대수롭지 않게 보이듯 흔한 일이 되었다. 물론 그 책임이 이 DINK족에게 있다고 매도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분위기와 사회적 압박은 알게 모르게 건전한 사람들의 깨끗한 뇌를 오염시킨 것 같다.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게 되었다. 이 새 세대를 특징지워줄 새 종족은 무엇일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던 시대의 풍조가 이제는 노인들에게까지 다가왔다. 어쩌면 60년대 Hippie족이 이제 나이가 들어 어느덧 Gray generation이 되었나 보다. 이른바 TONK족(차마 어르신네들에게 '족'이란 말을 붙이기 곤란하지만)이 출현한 것이다. 이 노인들에게도 어린애는 귀찮아졌다. 아예 없었으면 더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하였는지 늦게나마 애들 없이 노년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강해졌다 보다. 이른바 Two Only No Kid! 아이들을 귀찮아하는 바람이 또 불어오고 있다. 황혼에 이혼하는 풍습이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한국에서의 노인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일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또 국가도 좋아진다면 야 장려해야겠지만 인륜을 자기 욕심에만 맞추어 살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불경한 일이라 좋은 결과가 나올 성 싶지 않다.

결혼 전의 젊은내가, 애들을 키운다는 압박감과 불안감 때문에 No Kid!를 외치는 것은 좀 이해할 것 같은데 행복한 가정생활과 어린애의 재롱을 보며 피로를 풀었던 어르신네들이 No Kid!를 추구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가 않다. 얼마나 애들한테 시달렸으면 그럴까 하는 위로의 말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아이들은 성장하여 클 만큼 다 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애들을 마치 짐짝 벗어버리듯 후련하게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는 어떤 기막힌 모습이 우리 사회를 채울까 걱정이 앞선다. 하기가 나이가 들어서 TONK를 외치면 그나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가 TONK를 외치면 이들의 다음 시대는 DINK의 후손보다 더 참혹한 사회상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돈을 벌어서만 신나게 쓰고 다니려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니 이들 구미에 맞는 적절한 상품만 개발한다면 차세대 Silver 산업의 주요 상품으로 꽤 돈벌이가 될 것도 같다.

시대가 바뀌어도, 풍습과 인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 진리를 찾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늘상 움직이는 변화에 기준을 두지 않고 불변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에 인생을 맡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성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하는 마음은 자연계 속에 숨겨 있는 초월자의 원리를 찾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든다. Income이 적고 밤새 적어 놓은 연구과제 file을 인터넷 한답시고 다 날려 버려도 아이들의 해 맑은 눈 속에 가득 고인 사랑의 묘약은 또 다시 굳게 일어서게 하는 충분한 힘이 된다. 누가 아이들을 저주할 수 있는가!

쉽 터 광 고

쉽터는 회원의 수필기사를 다루어 기술지 기사를 정독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휴식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한 장입니다. 그동안 쉽터란은 부산대학교 하창식교수의 수필을 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의 수필을 실으면 합니다. 많은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